



07-30 (통권 157호)  
2007.7.27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IMF,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 무디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 조정

## 경영 노트

- 밀레의 '가족주의'

## 사회 트렌드

- 한국 IT 경쟁력 세계 3위
-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 여행

## 저널 브리프

- 건물은 이산화탄소 배출 창고

## 洗心錄

- 이카루스 패러독스

□ IMF,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예상외의 활발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자 IMF는 그동안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던 경제성장 전망에 더하여 이번 7월 이례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하였음
  - 이번 수정 전망에서는 중국('07년 11.2%, '08년 10.5%), 인도('07년 9.0%, '08년 8.4%), 러시아('07년 7.0%, '08년 6.8%) 등 신흥시장 국가들의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6~1.2%p 상향조정하였음
  - 반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07년 2.0%, '08년 2.8%)은 주택부문의 구조조정 여파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4월 전망('07년 2.2%, '08년 2.8%)에 비해 하향조정('07년 -0.2%p)함
  
- 하지만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서는 4월 전망치('07년 4.4%, '08년 4.4%)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2006년의 5.0%에 비하면 0.6%p 떨어진 수준임

□ 무디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002년 3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하였음
  -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강세 기조를 나타내었음
  - 이번 등급 상향조정의 주요인으로 무역·금융·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재정 안정성 관리, 6자 회담 2·13 합의 이행에 따른 북한관련 불확실성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온 무디스의 등급조정은 다른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최근 주가급등과 환율하락을 맞고 있는 국내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음

□ 밀레의 ‘가족주의’\*

- (개요) 독일의 명품 가전업체인 밀레는 설립된 이후 108년 동안 단 한 건의 노동쟁의나 노사갈등 없음
  - 1899년에 설립된 밀레는 2006년 매출액 3조 5천억 원에 임직원 1만5천명을 보유한 세계적인 가전업체로 ‘세탁기의 벤츠’로 불리고 있음
  - 1901년에 세계 최초로 세탁기를 개발하였고, 1929년에는 식기세척기, 1978년에는 컴퓨터 조정장치가 부착된 세탁기와 의류건조기를 출시함
- (성공 요소) 밀레의 성공비결은 경영진과 직원 간에 상사와 부하라는 계층 및 권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가족주의’적 노사관계임
  - (가족주의) CEO가 항상 직원들과 함께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건의사항이 발생하면 사장과의 직접 면담이 상시 가능함
  - (인본주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9,000명의 직원에게 25년, 40년, 50년 단위의 장기근속에 대한 축하행사를 지속해오고 있음
  - (복지제도) 연금제도와 의료서비스,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온천요양이나 고가에 속하는 치아관련 치료비를 기업이 부담함
  - (근무형태) 풀타임 근무제 이외에 육아를 위한 오전 근무 등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근무형태를 운영함
  - (자기개발) 본인 적성에 맞는 직종 전환과 이를 지원하는 사내대학 운영 등 직원의 자기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함
- (시사점) 한국 기업의 新노사문화 모델로서 가족주의적 노사관계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금 등 비용측면이 아닌 임직원의 충성도 유발을 통한 기업성과 및 가치상승 측면에서 노사관계를 조망하는 시각이 요구됨
  - 실제로 밀레는 2004년 대규모 매출감소로 인해 구조조정을 고려했으나, 결국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대신 R&D 강화로 위기를 돌파함
  - 그 기반에는 가족주의적 기업문화로 인해 축적된 장기근무자들의 충성도와 장인정신이 명품이라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냈기 때문임

\* 이 글은 CBS 노컷뉴스(2007.7.16)에 게재된 “독일 ‘명품가전’ 밀레, 따뜻한 ‘가족주의’ 기업으로 정평”을 요약재구성한 것임

## □ 한국 IT 경쟁력 세계 3위

### ■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이 세계 3위 수준으로 조사됨

- 세계 64개 국 IT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IT 산업 지수는 평균 67.2점으로 미국(77.4)과 일본(72.7)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조사)
- 특히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34%)은 네덜란드(36%)에 이어 2위에 오름

### ■ 그러나 조사 부문별 평점에서는 큰 편차를 보여 균형적인 육성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IT 연구개발 환경 부문은 전체 2위, 인적 자원은 5위, IT 인프라는 9위를 기록한 반면, IT 산업 개발 지원은 20위, 법적 환경은 20위 밖으로 처짐
- 보고서는 “한국의 IT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인 데다 재벌 등 소수 대기업이 장악한 비즈니스 환경도 문제”라며 “지금보다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선 IT 중심의 R&D 환경 개선과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 중점을 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 여행

### ■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꽃’으로 지칭됨

- 컨시어지(Concierge)란 중세시대 성에 딸린 방들의 초를 관리하던 집사를 뜻하는 것으로, 호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일컬음
- 고급 호텔이나 휴양지 등에서 컨시어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자동차 렌트부터 유명 식당 및 공연 소개, 항공권 예약, 여행 코스 상담, 우편물 발송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마케팅의 일환으로 컨시어지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이동통신사, 항공사, 카드회사 등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자사의 VIP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칭하여 의미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고객들은 좀 더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음

□ 건물은 이산화탄소 배출 창고\*

- (현황)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에 따르면 건물이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8%를 사용하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8%를 뿜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업 및 일반용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체 산업 배출량의 42%를 차지
  - 이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공장이나 발전소,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친환경 건축 관심 고조) 이에 따라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면밀히 분석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인 친환경 건축이 주목을 받게 됨
  - 이는 건축 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개념을 철저히 도입하여 건축 자재의 생산과 운송, 시공과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에 이르는 건축 전 생애주기로 감축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 그 예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대신 태양열이나 풍력 등의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이나 환기, 통풍도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들 수 있음
  
- (시사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상업 및 일반용 건물인 것을 인지하고 지구가 받는 환경부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내구성 있는 건축자재를 개발하여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늘림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이 글은 『weeklychosun』 (2007.7.3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이카루스 패러독스

아이팟과 아이폰을 성공시킨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성공의 달인만은 아니다. 스티브 잡스는 1976년 ‘애플 I’과 ‘애플 II’를 성공시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와 함께 세계 IT업계의 기린아로 등장한다. 그러나 1984년, 성공을 확신했던 매킨토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CEO에서 물러난다. 기술적 측면에서 매킨토시는 분명 혁신적이었지만 IBM PC와의 호환성을 요구했던 고객들의 욕구를 스티브 잡스는 무시하였던 것이다. 결국 젊은 시절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경험이 자만과 독선을 키워 스티브 잡스에게 실패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카루스의 역설’(Icarus Paradox)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공예의 신’ 다이달로스의 아들이다. 우연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카루스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밀랍 날개를 이용해 탈옥에 성공한다. 그러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서 해방감을 느낀 이카루스에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절대로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더 높이 날아오르다 태양에 깃털을 연결해주던 밀랍이 녹아 결국 바다에 떨어져 죽는다. 이 이야기는 성공이 결국 파멸을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나중에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의 저자 짐 콜린스는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라고 주장한다. 좋은 사람, 좋은 학교, 좋은 정부, 좋은 기업들이 좋은 상태에서 자만해버리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성공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지금의 자리도 유지할 수 없다.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보다 성공을 잘못 이용하는 것은 없다.**

아서 펠프스(1890~1933) : 미국의 블루스 음악가